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격 인허에 대한 최소주의적 고찰*

김 용 하 **

생성문법에서 기능 범주는 어휘 범주와는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 특히 최소주의의 모든 문법 운용에는 기능 범주의 비해석성 자질이 깊이 관여한다. 이런 기능 범주들 중 C, T, v는 문법 운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능 범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은 이들 중 T의 지위와 관련하여 과연 T가 한국어에서 여러 다른 어미들을 제치고 핵심 기능 범주로 취급되어야만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소주의 프로그램에서 T가 주격 인허를 담당하는 기능 범주임을 감안할 때 이 논문은 한국어 어미 체계 전반과 주격 인허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지침들이 어떻게 서로 만족될 수 있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핵심어: 핵심 기능 범주, 격 인허, 국면, 국면 단위 도출, INFL 복합체, EPP

1. 들머리

생성문법, 특히 80년대의 지배-결속 이론(혹은 원리-매개변인 접근법) 이후의 이론 체계에서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는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와는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¹⁾ 특히 최소주의의 모든

* 이 논문의 일부는 한국언어학회/한국현대언어학회 2004년 가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어의 T는 핵심 기능 범주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 대구대학교 연구원

문법 운용(grammatical operation)에는 기능 범주의 비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이 깊이 관여한다. 이런 점에서 Chomsky(2000)는 문법 운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 범주들을 핵심 기능 범주(CFC; core functional category)라고 부르고 C, T, *v*를 해당 요소들로 삼았다. CFC와 관련된 Chomsky(2000)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핵심 기능 범주(CFC; core functional category)

ㄱ. C, T, *v*는 CFC이다.

ㄴ. CFC는 비해석성 Φ -자질을 가질 수 있다.

ㄷ. CFC는 EPP에 의해 가외의 지정어(Spec)를 허용한다.

(1ㄱ)은 CFC에 해당하는 기능 범주를 적시한 것이고, (1ㄴ)은 이들이 비해석성 자질로서 Φ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기능 범주들은 이 비해석성 Φ -자질로 일치(Agree), 이동(Move)과 같은 문법 운용을 촉발한다. (1ㄷ)은 CFC가 이동을 일으키는 데 확대투사원리(EPP;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가 작용하여 그 지정어로 특정 요소들이 이동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²⁾ 그런데 이들 CFC는 국면과 관련해서

1) 기능 범주를 어휘 범주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비단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배-결속 이론 이후의 생성문법에서 기능 범주가 특별한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각 언어의 매개변인(parameter)의 차이는 기능 범주가 가진 자질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Borer(1984)의 주장은 Chomsky(1991) 이후로 전폭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특히 뇌 손상과 관련된 브로카(Broca) 실어증과 베르니케(Wernicke) 실어증 환자들이 기능 범주와 어휘 범주를 각각 잃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Fromkin · Rodman · Hyams 2003).

2) EPP는 원래 “모든 절은 주어의 자리를 갖는다”는 선언적 원리로서(Chomsky 1981, 1982), 의미역이 없는 허사와 같은 요소들로 주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초기 지배-결속 이론 체계에서는 다른 조합단위(module)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한편으로 EPP가 어찌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생성문법의 논란거리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로는 Boeckx(2000), Bošković(2002), Lasnik(1999a, 1999b), Martin(1999), Miyagawa(2004, 2005) 등을 참조하라.

는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Chomsky(2000)는 도출과 문법 운용의 단위로서 국면(phase)을 제안하면서 CFC에 해당하는 범주들이 국면 핵(head)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는 유독 T는 국면 핵에서 제외해 버린다.³⁾ 따라서 T는 CFC에는 속하지만 국면 핵은 되지 못하는 약간 엉거주춤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CFC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겠다.

- (2) 가. T를 제외하고도 다른 여러 기능 범주가 존재할 터인데 Chomsky(2000)는 왜 T를 핵심 기능 범주로 채택했는가?
- 나. 한국어와 같이 어미 체계가 복잡한 언어에서도 여전히 T를 C 아래의 대표적인 CFC로 내세워야 하는가? 즉, T를 CFC로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상의 문제인가? 주격 인허가⁴⁾ T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언어에서는 무엇을 대표로 삼아야 하는가?⁵⁾
- 다. 만일 한국어에서 어미와 격 인허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립된다면, 격 인허의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격 인허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얻고자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Chomsky(2001, 2005)에서 왜 T를 CFC에서 제외하고 실사 범주와 같은 범주로 다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3) Chomsky(2000)가 C와 v만을 국면 핵으로 선택한 이유는 “국면은 명제적이다(Phases are propositional)”라는 단서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어서 주-술 관계가 결정되는 TP가 왜 국면이 되지 못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여기서 굳이 ‘인허(license)’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 NP/DP가 격을 가지는 것이 점검이든 부여이든 혹은 가치 매김이든, T와 같은 요소와 연관을 맺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적 의미로 채택한 것이다.

5) Chomsky(2000)는 각주 31에서 C와 T는 굴절이 풍부한 언어 체계에서는 대리자(surrogate)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급에 따르면 언어에 따라 각각 다른 CFC가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INFL과 T/Agr

지배-결속 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혹은 원리와 매개 변인 접근법(Principles & Parameters approach) 시기에는 COMP의 보충어의 핵(head)이 INFL로 불리었고, 이 INFL은 일치소(Agr)와 시제(Tense)의 복합체로 취급되었다. Chomsky(1981:52)에 따르면 “굴절” 요소(inflexional element)인 INFL은 $[\pm\text{Tense}]$ 일 수 있다: 즉 한정형(finite $[\text{+Tense}]$)이거나 비한정형(infinitival $[-\text{Tense}]$)일 수 있다. 그리고 INFL은, 한정형일 경우에, 인칭(person), 성(gender), 수(number)의 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자질의 복합체를 Agr이라고 부른다. Chomsky(1981)는 INFL이 원칙적으로 $[[\pm\text{Tense}], (\text{Agr})]$ 이라는 자질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Chomsky(1981)의 가정은 Agr의 출현이 T의 정형성(finiteness)과 일대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지배-결속 이론 초기에는 T가 아직 독립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George · Kornfilt(1981:124)는 ‘시제성’ 조건(Tensed-S Condition)과 같은 원리가 ‘시제성(Tensedness)’보다는 ‘정형성(Finiteness)’과 같은 좀더 일반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터키 어에서는 정형성이 ‘시제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오히려 ‘주어 일치 표지(subject agreement marker)’의 존재로 이해된다는 것이다.⁶⁾ 이에 대해서 Chomsky(1981:210)는 시제와 일치가 구분되는 터키어나, 부정사가 굴절하여 일치 요소를 갖는 포르투갈 어에서는 불투명성(opacity)을 결정하는 것이 Agr이며, 영어도 같은 상황에 있다고 인정한다. INFL이 T와 Agr의 복합체라는 가정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T와 Agr이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지배-결속 이론의 초기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후 이런 가능성은 Pollock(1989)의 분리 굴절소 가설(Split-INFL

6) George · Kornfilt(1981)의 연구는 최소주의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격이 ϕ -자질의 부산물이라는 Chomsky(2000)의 주장은 이들의 연구에 기댄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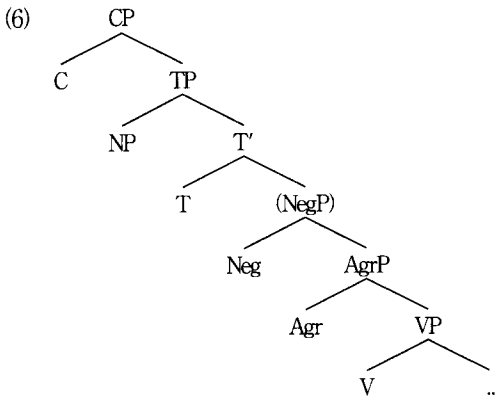
hypothesis)에 의해 실현된다. 그에 따르면 [\pm Tense]와 Agr은 자질 복합체인 INFL의 하위 요소들이 아니라, 각기 독립된 기능 범주들이다. 이러한 Pollock(1989)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영어-프랑스 어 동사 이동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 (3) 가. Jean embrasse souvent Marie.
 ‘Jean은 자주 Marie에게 입맞춘다.’
 나. *John kisses often Mary.
 다. Jean n’aime pas Marie.
 르. *John likes not Mary.
- (4) 가. Ne pas sembler heureux est une condition pour écrire des romans.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소설을 쓰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나. Not to seem happy is a prerequisite for writing novels.
 다. *Ne sembler pas heureux est une condition pour écrire des romans.
 르. *To seem not happy is a prerequisite for writing novels.
- (5) 가. A peine parler l’italien après cinq ans d’étude dènote un manque de don pur les langues.
 ‘5년 동안 공부하고도 이탈리아 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적 재능이 없다는 말이다.’
 나. To hardly speak Italian after years of hard work means you have no gift for languages.
 다. Parler à peine l’italien après cinq ans d’étude dènote un manque de don pur les langues.
 르. *To speak hardly Italian after years of hard work means you have no gift for languages.

(3)은 프랑스어의 동사가 부사는 물론 부정소(negative)까지 건너서 이동하는 반면, 영어의 동사는 전혀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⁷⁾ (4)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이가 부정소가 나타나는 비한정절에

7) 물론 “have”나 “be” 동사와 같이 부사와 부정소를 건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는 Pollock(1989)를 참조하라.

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는데, (5)에서 보다시피 부사에 대해서는 두 언어가 여전히 차이를 드러난다. Pollock(1989)은 아래와 같은 절 구조로 영어와 프랑스어의 동사 이동과 관련된 차이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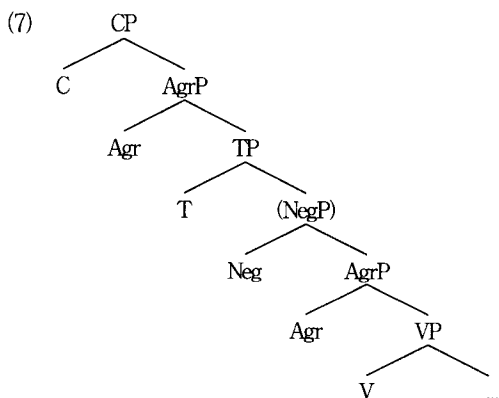


여기에는 굴절 형태의 풍부함이라는 기준이 작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굴절 형태가 풍부한 불어는 Agr과 T가 이동해 온 동사의 의미역을 전달할 만큼 투명(transparent)하지만, 굴절 형태가 빈약한 영어는 Agr과 T가 의미역 전달에 불투명(opaque)하다는 가정을 한다. 이는 굴절이 빈약한 프랑스어의 비한정절이 왜 부정소를 넘는 동사 이동을 허용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5)에서 프랑스어의 동사가 부사를 넘어 이동하는 곳이 곧 Agr 위치인 것이다.⁸⁾ 곧 T와 Agr이 분리되는 데는 동사 이동이라는 통사적 핵-이동(head movement)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Pollock(1989)의 논의를 대폭 받아들인 Chomsky(1991, 1993)는 동사의 형태론에서 일치 형태가 대개 시제 형태의 바깥에 나타난다는

8) 굴절 형태의 풍부함은 곧 Chomsky(1991, 1993)에 와서는 굴절 형태의 강도(strength)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이것이 후에 강자질(strong feature)이라는 개념의 원천이 된다.

Belletti(1990)의 관찰에 착안하여 (6)의 구조에서 C의 투사와 T의 투사 사이에 존재하는 Agr의 투사를 더 설정한다. 다만 T의 아래에 있는 Agr은 자신의 Spec에 목적어가 이동하도록 자리를 제공하며, V가 Agr로 핵-이동해서 목적어의 대격을 부여/점검(checking)하게 된다. 또한 T의 투사 위에 존재하는 Agr은 자신의 Spec에 주어가 이동하도록 자리를 제공하며, T가 Agr로 핵-이동해서 주어의 주격을 부여/점검(checking)하게 된다. 이 두 Agr은 동일한 기능 범주로서 다만 식별을 위해 T 위의 Agr은 AgrS로 T 아래의 Agr은 AgrO로 명명될 뿐이다. 이로써 주격과 대격이 공히 지정어-핵 일치로 단일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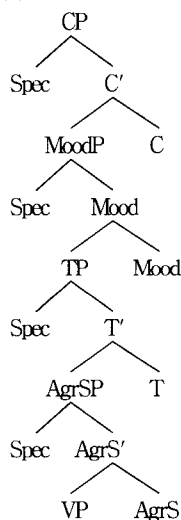
이러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은 한국어 통사론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이후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어느 때보다 절 구조와 어미 체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3. 한국어의 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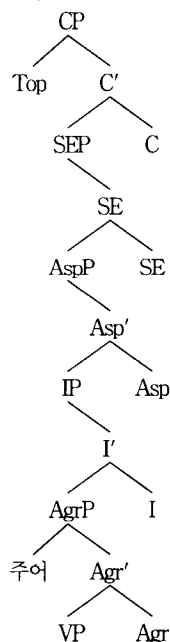
Pollock(1989) 이후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어미를 뚱뚱그려 단순히 INFL로만 쓰던 80년대 초·중반과 달리, 이들을 개별적인 기능 범주

핵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크게 일어났다. Ahn·Yoon(1989), J-Y. Yoon(1990), J-M Yoon(1990) 등의 연구가 그런 것인데 이들은 한국어의 어미 체제 전반 혹은 일부를 다루면서 다양한 기능 범주 핵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핵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정어 위치들의 역할과 이 위치들이 인허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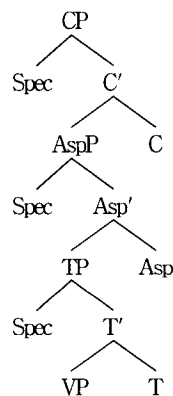
(8) Ahn·Yoon(1989)



(9) J-Y Yoon(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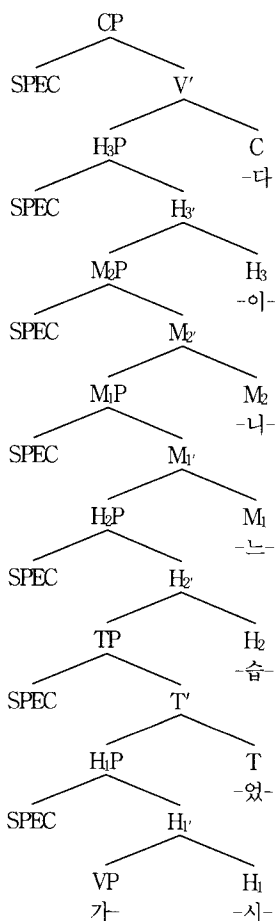


(10) J-M Yoon(1990)



이런 절 구조로 인해 생긴 무수한 지정어에 대한 고민의 단면을 서정목(1993)에서 볼 수 있다. 그는 한국어의 어미 체제를 모두 고려한다면 (11)과 같은 절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이 많은 기능 범주 핵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정어 위치에 어떤 요소들이 올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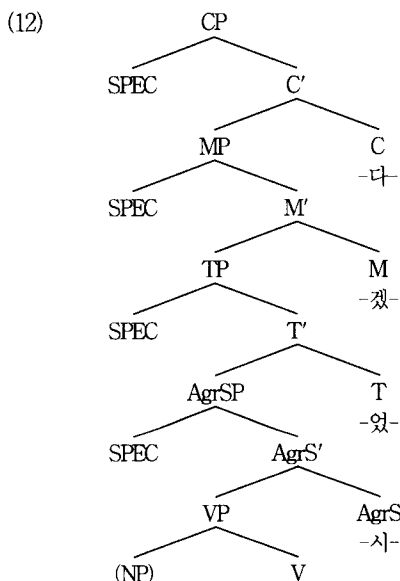
(11)



이런 서정목(1993)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유동석(1995)은 개별 기능 범주들이 허용하는 지정어에 어떤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따져 본 연구라 할 것이다. 유동석(1995)은 청자 대우 등급을 나타내는 어미

9) 서정목(1993)의 논의에는 기능 범주 핵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핵이 인허하는 지정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지정어의 증가에 대한 고민은 그 지정어들이 존재할 당위성에 대한 고민을 함의하므로 이것이 서정목(1993)의 논의가 가지는 의의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들을 문말 어미에 통합하고 “-시-”, “-었-”, “-겠-”, “-다”를 대표적인 기능 범주 핵으로 삼아 이 핵들이 제공하는 지정어 위치에서 인허되는 요소들이 대응하여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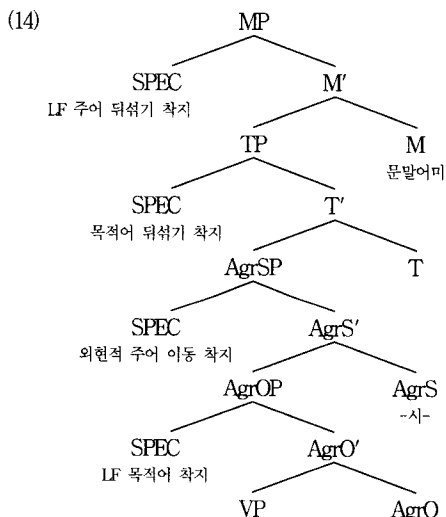
(12)에는 4개의 지정어 위치가 존재한다. 가장 아래에 있는 AgrS의 지정어 위치에는 주어가 기저 생성된다.¹⁰⁾ T의 지정어는 주제어/화제가 오는 위치이며, M의 지정어는 주제어 상당 부사어구가 차지한다. C의 지정어 위치에는 전형적으로 호격어가 오거나 LF에서 wh-의문문의 의문사구가 이동해 온다. (13)은 (12)의 모든 지정어 위치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채워졌을 경우 가능한 문장이다.

10) AgrS가 주격의 부여를 담당하는 기능 범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특이한 설정인데, AgrS의 지정어가 의미역까지 받는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동석의 논의는 Hale·Keyser(1993)의 논의와 닮아 있다.

- (13) [_{CP} 영수야 [_{MP} 내 생각에는 [_{TP} [_{TOP} 순희는] [_{AgrSP} 어머니가 [_{VP} 그 일을 가장 기뻐하] 시] 있] 겠] 다]

이런 유동석(1995)의 논의는 단지 이론적 필요에 의거해서만 지정어를 설정하고 관련 핵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¹¹⁾

한편, 유동석(1995)과는 다른 맥락에서 기능 범주와 관련 지정어를 논의한 것으로 S-H. Park(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ark(1994)은 한국어의 A-이동/격 점검(Case checking)과 뒤섞기의 도출/재구성 효과(reconstruction effect)를 설명하기 위해 분절된 절 구조를 도입한다.



11) 우연히도 유동석(1995)이 설정한 절 구조는 Tateishi(1994)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 (i) [_{CP} [Shinbun-o yomi-tai] hito-wa [_{MP} seiji-men-wa [_{IP} Yomiuri-ga [_{AgrP} Nakasone-san-ga yon-peeji-ni not] -tei] -masu] -yo]
 “신문을 읽으려는 사람은 정치면은 요미우리가 나카소네 씨가 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Tateishi 1994)

비슷한 시기에 한·일 양국의 학자가 비슷한 절 구조를 설정한 학위 논문을 내놓았다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다. 4절에서 유동석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14)의 구조는 유동석(1995)의 절 구조와 사뭇 다르다. 이는 Park(1994)의 논의가 주로 Chomsky(1993, 1994)의 초기 최소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유동석(1995)과는 다르게 이론적 필요에 의해 설정한, 다분히 자의적인 구조이다. AgrO의 지정어가 LF에서의 목적어 착지로 설정된 것은 Park(1994)이 한국어의 목적어 이동을 영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외현적인 이동(covert movement)으로 보기 때문이다. AgrS는 주어의 착지인데 주어의 이동은 외현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¹²⁾ T의 지정어 위치는 목적어가 뒤섞기될 때 차지하는 자리이며, 유동석(1995)의 C에 해당하는 M은 작용역(scope)이나 결속(binding)과 같은 의미 해석을 위해 주어가 T의 뒤섞기된 목적어를 넘어 LF에서 다시 뒤섞기를 겪을 때 차지하는 위치이다. 이러한 Park(1994)의 논의는 최소주의 프로그램이 소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한 것으로서, 훌륭한 이론적 연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어미 체계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론적 요구에만 부응하는 절 구조를 설정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요약하자면, Pollock(1989)와 Chomsky(1991) 이후에 한국어의 다양한 어미들을 기능 범주 핵으로 통사 구조에 표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지만 격 점검이나 이동 현상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지정어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보기 힘들다(이런 점에서 유동석(1995)는 예외적이다).

4. 한국어 어미 체계와 기능 범주 핵¹³⁾

12) 이는 AgrO와 AgrS가 동일한 범주의 분류법(taxonomy)에 지나지 않는다는 Chomsky(1993)의 가정과 다른 것으로서 또다른 이론적 문제를 야기한다.

13) 익명의 심사자 3명이 공히 이 논문에 대해 김용하(1999)의 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의문이 4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들 중 1명이 지적했듯이 이 논

4.1. 주격의 인허

Chomsky(1991)가 Pollock(1989)의 분리 굴절소 가설을 받아들여 T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AgrS와 AgrO를 설정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주어와 목적어가 가지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게 지정어-핵 일치라는 기제에 의해 부여될 수 있게 하여 격 부여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Chomsky(1993)의 최소주의 이론에서 지정어-핵 일치는 점검을 위한 형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능 범주를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연관하여 설정하려고 한다면 그 기능 범주가 점검, 특히 격 점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에서 주격 점검/부여를 담당하는 기능 범주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긴요한 일이 된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유동석(1995)는 한국어 어미 체계를 지정어와 관련하여 상당히 치밀하게 논의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유동석(1995)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절의 논의를 시작해 보자. 유동석(1995)에 따르면 T는 주제를 인허하며, 주제에 주격을 부여한다. 다음의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 (15) 가. *영수가 아버지가 오시다.
 나. *순희가 [영수가 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었다.
 다. *우리는 [영수가 아버지가 오시도록] 했다.
 라. *[영수가 아버지가 오시자] 순희는 가 버렸다.

(15)의 문장들은 겹주어가 포함된 절을 포함하고 있다. 유동석(1995)

문의 의도는 Chomsky(2000)의 핵심 기능 범주 관련 논의가 임흥빈(1997)과 김용하(1999) 등에서 제기된 어미 복합체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4절의 논의는 이 논문의 논리 구조 상 필요에 의해 김용하(1999)의 논의를 폭넓게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은 이럴 경우 제1 주어에 해당하는 요소를 주체어로 취급한다. (15ㄱ)은 이른바 ‘절대문’으로서 T가 나타나지 않는다. (15ㄴ)은 관계 관형절 속에 겹주어가 나타난 경우인데 이 관형절에도 역시 T에 해당하는 “-었-”이 나타나지 않는다. (15ㄷ)과 (15ㄹ)은 겹주어가 나타나는 종속절을 포함한 문장들로서 역시 T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동석(1995)은 이 T의 부재가 (15ㄱ-ㄹ)의 비문법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겠-”은 허용하지 않지만 “-었-”은 나타날 수 있는 (16)의 내포문에 겹주어가 허용된다는 점으로 더욱 지지를 받는다.

(16) 우리는 [영수가 아버지가 오시었(*겠)기]를 바랐다.

(15)-(16)의 예를 볼 때, 유동석(1995)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한 제1 주어가 주격 “-가”로 표시되더라도 진정한 주어가 아니라는 주장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유동석(1995)은 다른 방식으로도 주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AgrS에 지배되는 명사구에 주격을 부여한다는 그의 격 배당 원리이다.¹⁴⁾ 다음 문장들은 그의 주장이 옳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17) 영수가 [그분이 앉으시(*었)게/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18) ㄱ. 어머니가 [PRO/*당신이 나를 위해(*시)어] 기도하신다.

ㄴ. 그분이 [PRO/*당신이 손자를 따르(*시)어] 서울로 가셨다.

ㄷ. 그분은 [PRO/*당신이 백구를 벗삼(*시)어] 한가로이 지내신다.

(17)은 “-게”, “-도록” 내포문이 포함된 문장인데 이들이 이끄는 절은 T를 허용하지 않지만 주격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 내포문에 “-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주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유동석(1995)가 AgrS로 설정한 “-시-”라는 것이 명백

14) 한편, 유동석(1995)은 동사가 [-controlled]일 경우 그 보충어에도 주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유동석(1995)에 따르면 주격이 세 가지 다른 핵(기능 핵과 어휘 핵)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해지는 듯하다. 또한 (18ㄱ-ㄷ)의 문장들에는 “-어” 내포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포문은 “-시-”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내포문은 또한 PRO는 용인하지만 어휘적 주어는 담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시-”가 주격을 부여한다고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동석(1995)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김용하(1999)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제어의 출현이나 그에 대한 주격의 점검이 T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제기될 수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 (19) a. ?생선이 고등어가 맛있다.
 b. ?꽃이 장미가 아름답다.
 c. ?담배가 디스가 싸다.

(19)의 문장들은 이른바 순수 주제어(pure topic)가 나타난 문장들이다. 물론 이 경우 제1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지만 주격이 표시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동석(1995)에 따르면 이들의 주격은 T에 의해 인허되는 것으로서, 시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절에서도 이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들은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 ㄱ. (*생선이) 고등어가 맛있(었)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ㄴ. (*꽃이) 장미가 아름다우/웠던들, 백합만 하/했겠느냐?
 ㄷ. (*담배가) 디스가 싸지라, 사람들은 다른 담배를 사지 않는다.

혹자는 (20)에서 제1 주어가 불가능한 것이 원래 이런 내포문들에서 주제어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도 주제어가 T에 의해 인허된다는 유동석(1995)의 주장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음 문장에서 보듯

이 유동석(1995)이 주제화의 일종으로 본 겹주어 구문이 (20)의 내포문들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유동석(1995)의 주장에 자체 모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1) 가. 김 선생님이 [e 마음이] 너그러우시다. (유동석(1995)의 주제)
 나. 김 선생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시면,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 김 선생님이 마음이 너그러웠던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게다.
 르. 김 선생님이 마음이 너그러웠는지라, 학생들은 그분을 좋아했다.

그렇다면, 유동석(1995)의 이론은 완전히 그릇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동석(1995)은 주격 인허에 어미들이 분명히 연관된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15)-(16)을 포함하여 아래 (22)의 문장을 고려한다면 (23)과 같은 일반화는 가능해 보인다.

- (22) 철수는 김 선생님을/*이 훌륭하(*시)게 여겼다.
 (23) 어떤 절이든 최소한 “-시-”가 나타날 수 있어야 주격이 인허된다.

(23)은 ‘-시-’가 주격을 인허하는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어미들은 유무 대립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이 국어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이다. 국어의 상대높임법에는 ‘높임’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있지만 ‘낮춤’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없다. 상대높임법의 체계상 가장 낮은 등급으로 취급되는 ‘해라체’는 결국 ‘높임’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없을 뿐이지 ‘낮춤’에 해당하는 등급이 아닌 것이다.¹⁵⁾ 우리는 이것이 한국어 어미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유효한 분석 방식이라고 생각한다.¹⁶⁾

15) 상대높임법에 대한 논의는 김영희(2006)와 그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16) 익명의 심사자는 유무 대립에 대한 이 논문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 논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점진적인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유무 대립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아래에서 밝혀지겠지만, 한국어에 대한

4.2. 한국어 어미 체계에 대한 기술

한국어 어미 체계에 대해서 극단적인 유무 대립을 추구하는 논의를 임흥빈(1997)에서 발견할 수 있다. 4.1의 끝부분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유무 대립에 의한 분석 방식이 한국어 어미 체계 전반에 대해서 유효한 분석이라고 보지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흥빈(1997)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국어 어미 체계에 대한 기술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임흥빈(1997)은 만일 “-시-”를 Agr로 인정한다면 “-시-”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도 영 형태소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렇지만 (24ㄴ)에 존경이나 존대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 대립하는 영 형태소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어미 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된다.¹⁷⁾

(24) ㄱ. 아버님이 손이 크시다.

ㄴ. 철수가 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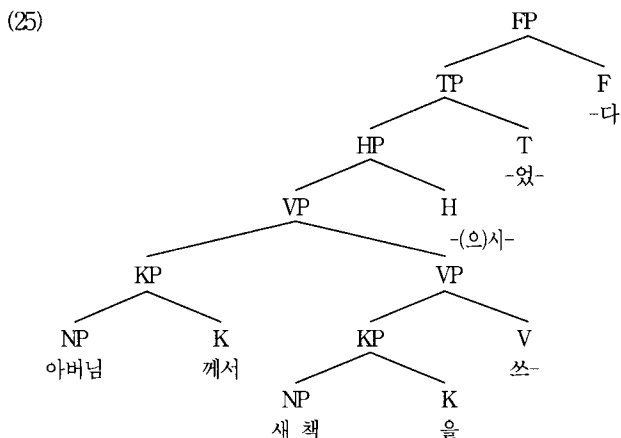
즉, (24ㄱ)의 “-시-”가 주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할 때, “Ø”가 “-시-”에 대립되는 형태소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ㄴ)에 “낮춤”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명백히 (24ㄴ)에는 이런 의미가 부재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임흥빈(1997)은 그간 국어학계에서 ‘활용’이

분석을 행할 때 어미 체계 혹은 문법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입장이 유무 대립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데, 이는 4.2에서 극단적인 유무 대립의 분석법을 택하는 임흥빈(1997)에 대한 비판에서 잘 드러날 것이다.

- 17) 모든 어미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 것은 아니지만 최동주(1995)도 유무 대립에 기초해서 어미 체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겠- : Ø’의 대립에서, “-겠-”이 ‘불확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갖는다고, “Ø”가 ‘확실’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겠-”에 대립하는 형태소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라고 불러 온 현상은 굴절도 파생도 아닌 ‘교착’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의 주장을 단순화해 보면, 한국어의 어미들은 그저 어떤 통사체와 결합하여 구를 이루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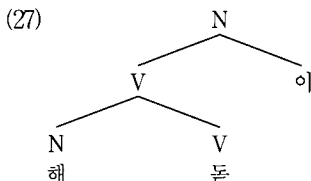
(25)의 구조대로라면, 임홍빈(1997)의 체계에서도 어미들이 통사적 핵의 역할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어미들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다. 임홍빈(1997)에 따르면, 이들은 어떠한 문법적 작용에도 간여하지 않으며, 이 어미들이 지정어 위치를 제공하고 그 위치로 어떤 요소가 이동해 오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임홍빈(1997)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유동석(1995)의 논의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¹⁸⁾

우리가 보기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어미가 다른 통사 작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교착’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격’의 점검/부여와 상관이 없는 요소라고 한다면 당장 다음과 같은 구성체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김용하 1999, 시

18) 최근 이정훈(2004)에서도 어미를 배제하고 주격의 인허를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서 그의 주장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임홍빈(1997)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곤 1994).¹⁹⁾

(26) *해가 돌이 (cf. 해가 돌음)



임홍빈(1997)에 따르면 논항들이 가지는 격은 어미와는 아무 상관 없이 VP 내에서 결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26)이 불가능할 이유는 무엇인가? (27)의 구조에서 명사화 접미사 “-이”를 제외한다면 “해”에 주격

19) 익명의 심사자는 (26)의 비문법성이 어휘적 완결성(lexical integrity)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며, ‘해돌이’에 대해서 임홍빈(1997)이 (27)의 구조를 상정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의 입장은 (적어도 핵이동과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면) ‘해돌이’에 대한 시정곤(1994)의 분석이 옳다는 것이다. 임홍빈(1997)에서 ‘해돌이’에 대해 (27)의 구조를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의 주장에 대한 이 논문의 반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27)의 구조가 ‘해돌이’에 대해서 유효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서 그 부당성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적 완결성이 “해가 돌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도 필자는 동의하지 못한다. 필자가 보기에, 임홍빈(1997)의 주장은 격 표시가 (25)에서 어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VP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해가 돌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데, 이 구성체에서도 ‘해가’의 주격은 어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해가 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해돌이’를 (27)과 같이 분석할 때 ‘해돌이’의 ‘해돌-이’ ‘해가 돌음’의 ‘해가 돌’과 어떤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심사자는 ‘해돌이’는 이미 합성-파생의 절차를 거쳐 어휘부에 등록되었다는 의미로 어휘적 완결성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휘적 완결성이란 이미 어휘부에 등록된 언어 표현이 통사론의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언어 표현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원리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누워서 떡먹기’와 같은 관용 표현이 어휘부에 등록될 때 합성-파생의 단위가 아닌 연결 어미가 포함되듯이 ‘해’와 ‘돌-’의 관계에 의해서만 격이 표시될 수 있다면 ‘해가 돌이’라는 언어 표현이 생성되는 것 자체를 어휘적 완결성이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조사가 표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해가 돋음”의 구조를 그린다면 (27)의 구조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cf. 시정곤 1994). 우리가 어미와 주격 인허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26)의 비문법성은 간단히 설명된다. 그것은 (26)에 주격을 인허할 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너무 유무 대립에만 치중하는 것은 범주 선택(categorical selection)의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임홍빈(1997)은 유무 대립에 기초한 어미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둔다.

(28) 교착소의 결여와 유추 해석 금지 제약 (임홍빈 1997)

국어의 교착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자리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여 유추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25)와 같은 계층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28)과 같은 강력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통사적 구성체의 핵을 이루는 ‘교착소’들에 범주 선택과 관련된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체의 핵이면서도 보충어에 대한 선택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28)이 실제로 유효한 금지 제약이라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시-”는 나타났을 때만 설정될 수 있는 교착소이다. “-었-”은 “-시-”의 뒤쪽에 나타나며, “-시-”가 나타나서 HP를 이룰 경우 이 HP를 보충어로 선택한다. 그렇지만 “-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만일 “-시-”와 그 투사체인 HP가 없을 경우 “-었-”은 VP를 그 보충어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임홍빈(1997)만의 것이 아니다. 어미가 일종의 통사적 핵이 되어 계층적으로 구조화된다고 보는 모든 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25)의 문장을, 어미의 등장을 달리하여 구성해 본다.

- (29) 가. 아버지가 새 책을 쓰다.
 나. 아버님이 새 책을 쓰시다.
 다. 아버님이 새 책을 쓰시었다.
 르. 아버님이 새 책을 쓰시었겠다.
 (30) 가. 아버지가 새 책을 쓰겠다.
 나. 아버님이 새 책을 쓰시겠다.
 다. *아버님이 새 책을 쓰시겠었다.

(28)을 설정하면 (29)의 문장들로 볼 때, ‘-다’는 VP(혹은 vP), HP(혹은 AgrSP), TP, MP를 모두 보충어로 선택할 수 있다. (26)은 ‘-겠-’이 VP, HP, TP를 보충어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었-’은 VP와 HP만을 선택할 뿐 MP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임흥빈(1997)은 ‘재구조화(restructuring)’라는 기제를 사용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 (31) 가. 재구조화된 동사: 잡았다, 잡으시었다, 잡더라, 잡으시었겠다, 잡겠다, 잡았었다, 잡았겠다, 잡으오니, 잡았사오니, 잡았겠더라, 잡았기, 잡았음, 잡았을
 나. 재구조화된 동사의 기본 어간: 잡-
 다.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1차 어간: 잡았-, 잡으시-, 잡더-, 잡겠-, 잡으오-
 르.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2차 어간: 잡으시었-, 잡으시겠-, 잡았었-, 잡았겠-, 잡았사오-
 미.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3차 어간: 잡으시었겠-, 잡았었겠-, 잡았겠사오-
 바. 재구조화된 동사의 재구조화된 제4차 어간: 잡으시었겠더-, 잡았었겠더-, 잡았겠사옵더-

재구조화의 효과는 최현배(1937)의 ‘보조 어간’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즉, 최현배(1937)의 보조 어간이 진짜 어간에 붙어 어간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미가 결합되어 재구조화된 어간은 역시 어미가 결합될 수 있는 어간이므로 범주 선택의 문제가 회석될 수 있는 것이

다. 김용하(1999)도 ‘초범주(super category) 형성’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임홍빈(1997)의 재구조화 효과를 포착하려 한 바 있다.²⁰⁾

(32) ㄱ.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겠다.

ㄴ. [_{CP} [_{IP} 경찰관이 [_{I'} [_{IP} 도둑을 [_{VP}



재구조화/초범주 형성이 임홍빈(1997)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해도 이것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우리는 어미가 주격의 인허에 간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어의 어미 체계가 어떻게 주격을 인허하는지를 밝혀야 할 과제가 남는다.

5. 최소주의와 한국어의 어미 체계

5.1. φ -자질과 Agr

이제 다시 애초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와 보자. T는 과연 핵심 기능 범주인가? 한국어의 T는 다른 어미들을 제치고 주격 인허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핵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건대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T만이 핵심 기능 범주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면 어찌해서 최근의 최소주의에서는 T만이 남게 되었는가?

이는 Chomsky(1995)가 초기 최소주의에서 가정해 왔던 분리 굴절소가설(Split INFL Hypothesis)을 포기하면서 Agr을 아예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Bobaljik(1995)은 이에 대해서 유용한 해답을 제공한다.

20) 초범주 형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하(1999)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다만 초범주 형성이 재구조화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문법의 여러 부면에 융통성 있게 작용한다는 점만을 밝혀 둔다.

Bobaljik(1995)은 Agr을 기능 범주 핵으로 구 구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증거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외현적인 동사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나 목적어의 외현적인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현적인 동사 이동이나 외현적인 논항 이동이 있어야만 Agr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Agr이 항상 강한 V-자질이나 강한 NP-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33) Agr은 강자질(strong feature)을 가지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33)이 매우 이상한 결론이라는 것은 Agr이 강자질을 가질 때만 존재하는 범주란 매우 이상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Chomsky(1995)에서 강자질이란 비해석성(uninterpretable) 자질이다. 이 비해석성 자질을 가진 요소는 LF에서 합법적인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사라져야 할 비해석성 자질만을 갖는 요소를 상정하는 것은 대단히 거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Agr은 개념적 필연성(conceptual necessity)을 추구하는 최소주의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그 제거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Agr의 제거는 한국어에서 “-시-”와 같이 명백한 일치 요소의 도입조차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에서 살펴 본 한국어 어미 체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더구나 “-시-”가 매우 활동적인 기능 범주 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볼 수 있다.

(34) 형태/통사론적으로 명백한 존재를 드러내는 요소는 구조 상 표시되어야 한다.

우리가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르면서 한국어의 어미 체계를 기술하려 한다면, (33)과 (34)의 상충된 결론은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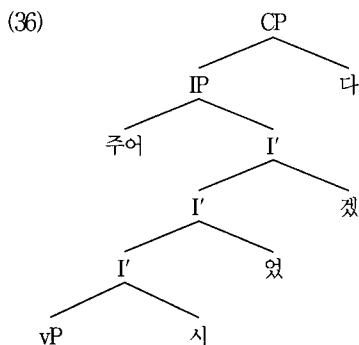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김용하(1999)는 한국어의 어미 체계/절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제시했다.

- (35) ㄱ. 한국어의 INFL 요소들은 각기 자신의 투사체를 이끄는 핵으로서 계층적 정렬 구조를 이룬다.
- ㄴ. 한국어의 INFL 요소들은 외현적으로 실현될 때에만 문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영 형태소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ㄷ. 한국어의 주격 점검에는 INFL 요소들이 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한 요소만이 주격을 점검한다고 설정하기가 어렵다.

(35)에 대해 ‘잠정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은 이것이 표면적인 관찰로 볼 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김용하(1999)는 이들 중 (35ㄴ)이 절대적인 원칙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한국어 INFL 요소가 기본적으로 유무 대립에 의거해 문법적 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INFL 요소의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며,²¹⁾ 특히 주격의 점검에 어떤 형태로든 INFL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주격이 정상적으로 인허되는 문맥에서는 비록 INFL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INFL 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김용하(1999)는 특정 INFL 요소가 지정어 위치를 인허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타난 INFL 요소들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지정어 위치를 인허한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²²⁾

21) 예를 들면 과거 시제 “-었-”에 대응하는 비과거 시제 “Ø”의 설정과 같은 것이다. 이는 유무 대립에 기초한 분석을 행한 최동주(1995)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22) 익명의 심사자는 (36)의 구조가 설정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 논문이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36)의 구조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또 다시 긴 논의가 요구되므로, 김용하(1999)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과연 이런 식의 분석이 현재의 최소주의 문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INFL의 기본적인 유무 대립을 인정한다면 “-시-”와 높임 대상 주어의 일치 외에는 Φ -자질 일치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거의 없는 한국어에 대해 Chomsky(2000, 2001) 식의 Φ -자질 일치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영어에 있어서도 Φ -자질이 동사(궁극적으로 T)에 표시되는 것은 이른바 3인칭 단수 현재 구문뿐이다. Bobaljik (1995)에 따르면 이는 영어의 일치 형태소와 시제 형태소가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Halle · Marantz(1993)의 분포 형태론(DM; Distributed Morphology) 식의 설명을 하자면, T와 Agr이 융합되어 형태소가 나타날 자리가 하나 밖에 없을 때 이 둘 중 하나가 출현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Agr이 3인칭 단수 현재 구문에서만 형태론적으로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제/인칭 구문에서도 Agr의 자질(즉, Φ -자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Bobaljik(1995)의 주장대로 영어에서 T와 Agr이 융합되어 하나의 핵 위치에만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T가 비해석성 Φ -자질을 가진다고 하는 Chomsky(2000, 2001)의 설정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 그러나 ‘-시-’가 없을 때는 Agr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 되는 한국어에서는 T에 대한 Φ -자질의 설정이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된다. 이는 최소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연

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5.2. 국면 단위 도출과 핵심 기능 범주

다시 (36)의 구조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우리는 INFL을 구성하는 어미들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주격의 인허에 참여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어의 주격을 인허하는 어떤 특정 어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미들이 차례차례 구조에 편입될 때 정확히 어떤 어미가 INFL의 마지막 요소인지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vP와 “-시-”가 결합했을 때 “-었-”이나 “-겠-”이 다음에 통합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INFL의 투사가 마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에 입각하여 내다보기(look-ahead)를 철저히 배제하는 최근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지침과 상충되는 것이다(cf. Collins 1997, Chomsky 2000, 200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면(phase)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국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어휘 정렬(lexical array)이나 배번 집합(numeration)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순환적 도출에서 일종의 순환(cycle)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Chomsky(2000, 2001)는 국면을 이루는 단위가 vP와 CP라고 주장한다. 1절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T는 핵심 기능 범주이면서도 국면을 이루는 단위에서는 배제가 된다.²³⁾ 각주 3에서 밝혔듯이 왜 T가 국면 핵에서 배제되는가에 대해서 Chomsky(2000)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Chomsky(2001)에서 그 이유의 일면을 볼 수 있다.

Chomsky(2001)는 T를 실사 범주(substantive category) 즉 어휘 범주와 비슷한 요소로 취급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T의 Φ -완전성(Φ

23) Bošković(2002)는 Rizzi(1990)의 상대적 최소성(relativized minimality)을 연상케 하는 일종의 상대적 국면 이론을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TP는 A-이동에 대해서는 국면이 되는 것이다.

-completeness)이 C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T가 격을 인허하기 위해서는 Φ -완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T는 C에 의해 선택될 때만 Φ -완전성을 갖는다. 이런 T의 차이는 같은 부정사 절(infinitive clause)이라고 하더라도 전위(dislocation)에 대해 다른 모습을 보이는 통제 구문(control construction)과 올리기 구문(raising construction)의 부정사 절이 잘 보여준다.

(37) ㄱ. John tries [_{CP} [_{TP} PRO to meet Jane]]

ㄴ. John seems [_{TP} to meet Jane]

(38) ㄱ. [_{CP} [_{TP} PRO to meet Jane], John tries.

ㄴ. *_{TP} to meet Jane], John seems.

(37ㄱ)의 부정사 절은 CP로서 PRO의 영격(null case)이 인허되는 Φ -완전 TP가 포함되어 있다(cf. Chomsky · Lasnik 1993). 그렇지만, (37ㄴ)의 부정사 절은 TP로서 C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으므로 Φ -완전하지 않다. 이 두 부정사 절은 (38)에서 보듯 전치에 대해 다른 문법성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T가 주격을 인허하고 EPP-자질을 가져 주어를 지정어 위치에 두는 것은 C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T의 지정어 위치가 C가 편입된 이후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론은 확장 요건(extension requirement)에 의해 순환성을 담보하는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²⁴⁾

국면 단위 도출에서 C의 투사가 이루어진 후 T의 EPP가 만족될 수 있음은 wh-구문에서도 드러난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39) (guess) what John read.

(39)의 문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24) 확장 요건이란 어떤 요소가 이동 혹은 병합될 때는 전체 구조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국면 단위 도출에서는 확장 요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

(40) [TP T [LP what [v' John [VP read t]]

T의 EPP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어 “John”이 그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40)에는 “John”보다 “what”이 T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Hiraiwa(2001)에 따라 등거리 조건(equi-distance)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John”은 “what”이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지 않으면 TP의 지정어 위치로 올라갈 수 없다. “what”의 제거가 가능할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구조는 다음 (41)과 같은 것이다.

(41) (guess) what_{Obj} [John_{Subj} T [LP t_{Obj} [t_{Subj} read t_{Obj}]]]

Chomsky(2001)는 C가 투입된 후 “what”이 그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vP의 외곽 지정어에서 “what”이 제거되면 “John”이 T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전제된다.²⁵⁾

(42) HP의 음운론적 가장자리(edge)는 탐색자 P에 접근 가능하다.²⁶⁾

(43) 비활성 흔적은 부합(Match)을 허용하지 않는다.²⁷⁾

즉 “what”이 C에 이끌리어 이동하고 나면 “John”이 음운론적 가장자리에 위치한 요소가 되어 탐색자 자질을 가진 T에 의해 이끌릴 수 있게 되며, (43)에 따라 “what”이 남긴 흔적은 최소 연결 조건(MLC) 위

25) 아래의 조건들이 오로지 (41)을 위해서만 마련된 것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 왜 이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분석과 크게 연관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Chomsky(2001)을 참조하라.

26) 여기서 “음운론적”이란 꼬리표가 붙은 것은 “what”의 원래 자리에 남겨진 흔적이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HP는 어떤 특정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국면을 이루는 범주의 투사체를 지칭한다.

27) 부합이란 일치(Agree)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여기에는 자질의 동일성이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값(value)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종류의 자질이라면 부합이 가능하다.

반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Chosmky(2001)의 국면 단위 도출은 부분적인 표상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면 단위 도출에 입각하여 부분적인 표상적 분석이 가능하면, 한국어에서 C에 해당하는 요소에 의해 국면이 완성될 때까지 INFL 요소들의 EPP 만족이 지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주격의 인허에 관련되는 INFL의 출현은 어미 체계 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C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위에서 아래의 문장들을 논의했을 때 이미 암묵적으로 가정되었던 것이다.

- (44) 영수가 [그분이 앉으시(*었)게/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 (45) a. 어머니가 [PRO 나를 위해(*시)어] 기도하신다.
b. 그분이 [PRO 손자를 따르(*시)어] 서울로 가셨다.
c. 그분은 [PRO 백구를 벗삼(*시)어] 한가로이 지내신다.
- (46) 철수는 김 선생님을/*이 훌륭하(*시)게 여겼다.

우리의 분석을 소상하게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장의 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 (47) (지금쯤이면) 김 여사님이 오셨겠다.

괄호 부분을 제외한다면, (47)의 문장은 도출의 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이를 것이다.

- (48) [_{NP} 김 여사님 오]

이제 “-시-”, “-었-”, “-겠-”이 차례차례 구조에 편입될 것이다.²⁸⁾

28) 여기서는 “-시-”, “-었-”, “-겠-”이 차례대로 병합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시-”의 병합은 다른 선문말 어미들의 병합과 다를 수 있다. 이는 “-시-”가 Φ -자질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인데, 만일 임동훈(2000), 최웅환(1997)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시-”는 다른 선문말 어미들이 병합된 후에 C가 이들 어미들

- (49) ㄱ. $[_{CP} [_{NP} \text{ 김 여사님 오 }] \text{ 시 }]$
 ㄴ. $[_{CP} [_{r} [_{vP} \text{ 김 여사님 오 }] \text{ 시 }] \text{ 였 }]$
 ㄷ. $[_{CP} [_{r} [_{r} [_{NP} \text{ 김 여사님 오 }] \text{ 시 }] \text{ 였 }] \text{ 겠 }]$

(49ㄷ)에 C 요소인 “-다”가 결합되면 “-시었겠-”이라는 INFL 복합체의 Φ -자질과 EPP-자질이 활성화될 것이다.²⁹⁾ 결국 주어 “김 여사님”과 INFL 간에 일치(Agree) 혹은 부합(Match)이 일어나 “김 여사님”에 주격이 부여되고, 이것이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INFL의 EPP-자질이 만족된다.

- (50) ㄱ. $[_{CP} [_{NP} [_{r} [_{r} [_{NP} \text{ 김 여사님 오 }] \text{ 시 }] \text{ 였 }] \text{ 겠 }] \text{ 다 }]$
 ㄴ. $[_{CP} [_{NP} \text{ 김 여사님이 } [_{NP} \text{ t 오 }] \text{ 시-었-겠 }] \text{ 다 }]$

(48)-(50)의 분석은 (36)과 같은 구조에서 INFL 복합체에 의한 주격 인허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준다. Chomsky (2001) 방식의 국면 단위 도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36)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때 풀어야 할 과제는 ‘-다’가 나타날 때까지는 전문 말 어미들의 결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시-’가 결합되자마자 격 인허가 실행되고 이후 나머지 전문 말 어미들이 격 인허

로 이루어진 INFL 복합체의 Φ -자질을 활성화시킨 후 삽입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9) 익명의 심사자는 C 요소에 의해 INFL 복합체의 Φ -자질이 활성화되어 일치와 격 부여 같은 문법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약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논문이 확장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Chomsky(2001)가 C가 T의 Φ -완결성(Φ -completeness)을 결정하는 것이리라는 주장을 펼친 이후 Chomsky(2005)는 이를 필연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Miyagawa(2004, 2005)의 연구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즉 현재 이 C가 INFL의 Φ -자질을 활성화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깊은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논의가 있다고 해서 이 논문의 주장이 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어떤 C 요소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주격을 인허하는 INFL 요소들의 출현이 결정된다는 유동석(1995)의 암묵적인 관찰이나 이 논문의 4절에서 행해진 논의가 어느 정도 이 점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각주 28를 참조하라.

와는 상관없이 병합되는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C 요소인 ‘-다’가 INFL 복합체의 Φ -자질을 활성화 시키고 이에 의해 격 인허가 실행된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homsky(2001) 이후의 국면 단위 도출은 한국어 어미 체계와 격 인허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C의 출현으로 국면이 완성되면, 임흥빈(1997)의 재구조화나 김용하(1999)의 초범주 형성에 의해 한 덩어리의 단위로 뭉쳐진 INFL의 EPP 충족을 위해 주어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 구조는 (36)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어미 체계와 최소주의 프로그램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애초에 우리가 1절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해 보자. (2)를 여기에 다시 옮겨 본다.³⁰⁾

- (2) 가. T를 제외하고도 다른 여러 기능 범주가 존재할 터인데 Chomsky (2000)는 왜 T를 핵심 기능 범주로 채택했는가?
- 나. 한국어와 같이 어미 체계가 복잡한 언어에서도 여전히 T를 C 아래의 대표적인 CFC로 내세워야 하는가? 즉, T를 CFC로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상의 문제인가? 주격 인허가 T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언어에서는 무엇을 대표로 삼아야 하는가?
- 다. 만일 한국어에서 어미와 격 인허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립된

30) 익명의 심사자는 (2)의 의문들과 이에 대한 대답이 과연 의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2)의 의문들에 대해 이 논문이 제시하는 답이 이론적 암시 이상이 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하는 듯하다. 이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다. 하지만 (2)의 의문들은 최소주의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암묵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2)의 의문들이 최소주의 프로그램에 입각한 한국어 연구에서 거의 명시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2)의 의문들은 충분히 제기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다면, 격 인허의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2ㄱ)은 결국 “어찌하여 Agr과 T 중 T만이 INFL을 대표하는 기능 범주 핵으로 남았는가?”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독 T만이 핵심 기능 범주의 하나가 된 것은 이론 발전 상 남게 된 부산물, 그것도 영어 통사론 분석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관습적인 표기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INFL이 [Tense, Agr]의 자질 복합체로 취급될 때 영어 부정사 절의 INFL이 [-Tense]라는 자질값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사 절에도 T라는 표기를 쓰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이럴 경우, 우리가 [-Tense] 자질을 갖는 T라는 이상한 범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³¹⁾

(2ㄱ)과 관련하여, (2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적어도 한국어와 같이 주격 인허가 오로지 T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언어에서는 T를 INFL 체계의 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INFL에 속하는 어미 복합체 전체가 주격 인허에 참여하는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현재 발전 단계에서는 어미 복합체가 국면을 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핵심 기능 범주를 이루지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INFL에 속하는 어미들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는 5절의 분석은 이런 측면에서 최소주의 프로그램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2ㄴ)에 대해서는 국면 단위 도출 분석이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이미 보았다. 어미들 전체가 하나의 INFL 복합체를 이루고 C 요소에 의해 ϕ -자질과 EPP-자질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이들이 주격을 인허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주격 인허의 양상으로 볼 때 INFL 요소들 중 T만을 핵심 기능 범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31) 유럽 학자들의 저작물에서 T, TP보다는 I(NFL), IP가 선호되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 같다.

않다. 오히려 INFL 요소들의 덩어리가 주격을 인허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 때문에 핵심 기능 범주로서 무엇을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용어 상의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역락.
-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 서정목(1993), 한국어의 구절구조와 엑스-바 이론, 《언어》 18, 395-435.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이정훈(2004), 국어의 문법형식과 통사구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교착소’와 ‘교착법’의 설정을 제안하며, 《관악어문연구》 22, 93-163.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응환(1997), 국어 문형성의 기제와 그 실현 양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Ahn, H-D., and H-J. Yoon(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79-88,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Belletti, A.(1990), *Generalized verb movement*. Turin: Rosenberg & Sellier.
- Bobaljik, J. D.(1995), *Morphosyntax: The syntax of verbal inflec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Boeckx, C.(2000), *EPP eliminated*,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Borer, H.(1984), *Parametric syntax*,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Bošković, Ž.(2002), A-movement and the EPP, *Syntax* 5, 167-218.
- Chomsky, N. and H. Lasnik(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J. Jacobs, et. al.,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Walter de Gruyter, reprinted in Chomsky(1995), 13-127.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417-454,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distributed by MITWPL.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2005), On phases, Ms., MIT.
- Collins, C.(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Fromkin, V., R. Rodman, and N. Hyams(200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George, L. M., and J. Kornfilt(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F. Heny, (ed.), *Binding and filtering*,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e, M., and A. Marantz(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11-176, Cambridge, Mass.: MIT Press.
- Hiraiwa(2001), Multiple Agree and the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 in Japanese. In O. Matsushansky et. al., (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0, 67-80.

- Lasnik, H.(1999a), On feature strength: three minimalist approaches to 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0, 197-217.
- Lasnik, H.(1999b), Chains of arguments, In S. D. Epstein and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189-215, Cambridge, Mass.: MIT Press.
- Martin, R.(1999), Case,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D. Epstein and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1-25, Cambridge, Mass.: MIT Press.
- Miyagawa, S.(2004), On the EPP, Ms., MIT.
- Miyagawa, S.(2005), Unifying agreement and agreement-less languages, Ms., MIT.
- Park, S-H.(1994) A- and A-bar dependencies and minimalism in movement theories: Scrambling and bind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Pollock, Y-V(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Tateishi, K.(1994), *The syntax of 'Subject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Yoon, J-M.(1990), Verb movement and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 343-371.
- Yoon, J-Y.(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주소: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80 청솔타운 215동 502호]

전화 : 011-9591-7570

E-mail : kyocheon@netsgo.com

접수 일자 : 2005. 9. 30.

게재 확정 일자 : 2005. 11. 11.

A Minimalist Investigation in the System of Korean
Inflectional Morphemes [Kim, Yong-Ha]
한국어의 어미 체계와 격 인허에 대한 최소주의적 고찰 [김용하]

Functional categorie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lexical categories in generative grammar. Especially in the minimalist program, the interpretable features of functional categories have deep influence on every grammatical operation. Of these functional categories, C, T, and *v* are taken to be the core functional categories (CFCs), which play core roles in the grammatical oper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 in Korean should be regarded as a CFC winning over all other inflectional elem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 is a functional category licensing nominative Case in the minimalist program,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udy of the whole system of inflectional categories and nominative Case licensing in Korean. During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e explicate how the Korean inflectional system and the guidelines of the minimalist program can be satisfied with each other.

Key words: CFCs, Case licensing, phase, derivation by phase, INFL complex, EPP